

십자가의 요한이 본 영적성장에서의 고난의 의미: 목회상담학적 고찰

조인효*

국문초록

이 세상에 살면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중세시대에 살았던 기독교 영성이 성 요한은 자신이 겪었던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을 영혼의 어두운 밤으로 명명하고 그것을 하나님과 연합해가는 여정으로 여겼다. 그는 고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과의 강력한 합일을 경험하고 그러한 자신의 경험을 통해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했다. 그는 자신의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자신 안에 있었던 불순한 것들을 보게 되고 정화되어감에 따라 하나님의 격려와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음을 고백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신비의 하나님이며, 영성은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이었다. 그의 경험은 현재를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도 고난 가운데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움을 준다. 특별히 그의 영적여정은 현대의 심리학적인 개념과도 일치하는 면이 많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접어들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영성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십자가의 성요한의 영성을 심리학적으로 대비해보고 그에 따라 목회상담학자들이 목회적 돌봄이나 상담에서 심리학과 영성을 통합하여 사용한다면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중심단어: 기독교 영성, 고난, 영혼의 어두운 밤, 기독교 신비주의, 목회상담

• 논문 투고일: 2014년 10월 17일

• 논문 수정일: 2014년 11월 7일

• 게재 확정일: 2014년 11월 12일

* 숭실대학교

I. 여는글

16세기, 스페인의 수도원에 있었던 십자가의 요한은 신앙의 여정 안에서 극심한 고통과 회복을 경험했다. 12세기부터 기독교 신비주의가 융성하기 시작하였으며, 십자가의 요한은 이그나시우스 로욤라와 아벨라의 테레사와 함께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신비주의자로 알려져 있다.¹⁾ 때때로 신비적 체험이 이성적, 과학적으로는 부적합하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우리의 정신가운데 알려지지 않은 차원이라고 보기도 한다.²⁾ 십자가의 요한도 신앙의 여정을 설명할 때 신비적 체험을 반영 하지만 결코 추상적이기만 하지 않으며 초신자의 신앙부터 최고 차원의 영적 상태까지 영적인 발달단계를 연대기적으로 설명한다. John Markey는 신비주의와 영성은 단지 기이한 경험에 제한되지 않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³⁾ 십자가의 요한도 일상생활과 그리고 혹독한 시련 속에서 겪은 삶의 크고 작은 고통을 통해 영성의 높은 단계에 이르렀고, 그 성장의 과정을 그의 저서들에 묘사해 놓았다. 그의 글은 학문적이기 보다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고난을 통해 얻은 실질적인 지식들에 초점을 맞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의 고난은 정죄보다는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었고 사랑과 회복의 초월적인 경험을 통해 고난 중에 있는 다른 동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한 십자가의 요한의 의도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그의 저서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중세의 기독교 신비주의와 영성이 현대 기독교인들

1) John Macquarrie, *Two Worlds Are Ours: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Mysticism*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2005), 162.

2) Louis Dupré, "General Introduction," in *Light from Light: An Anthology of Christian Mysticism*, eds. Louis Dupré & James Wiseman (New York: Paulist Press, 2001), 3-15 .

3) John Markey, "Instrument of the Spirit: The Role of the Spiritual Director in the Writings of John," *Studies in Formative Spirituality* 13(1992): 29.

의 삶, 특히 고난의 삶과 신앙의 여정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십자가의 요한의 고난을 통한 영성의 개념이 현대의 심리학, 정신의학, 그리고 목회학 등에 주는 통찰력을 알아보고 그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고난 가운데 희망을 잃지 않고 고난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히려 깊어지는 영성을 회복하도록 돕는 목회상담학적인 고찰을 시도하는 것이다

II. 펴는 글

1. 십자가의 성 요한의 생애와 영성의 개념

1) 생애

십자가의 요한은 1542년 스페인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⁴⁾ 그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후원자의 도움을 받아 Salamace 대학에서 철학과 신학을 전공했다.⁵⁾ 십자가의 요한은 21세에는 Carmelite 수도원에 들어갔으며 25세에는 유명한 스페인 대학을 졸업하였다. 그 후에 안수를 받고 Carmelite 수도원의 신부가 되었다.⁶⁾ 거기서 그는 테레사의 가르침에 감명을 받았고 그녀의 개혁에 동참하였다. 그러나 개혁 반대파의 저지로 개혁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 아니라, 수도원의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다. 심지어 나이가 많아진 후에는 같은 개혁파에게도 배신을 받았다. 그의 많은 저서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들을 통과하며 쓰여

4) Macquarrie, *Two Worlds Are Ours*, 162.

5) Rowan Williams, *Christian Spirituality: A Theological History from the New Testament to Luther and St. John of the Cross* (Atlanta: John Knox Press, 1980), 161.

6) Lawrence S. Cunningham, "St. John of the Cross, Mystic of the Light: A Search for the Historical John," *America*, January, 2006, 22.

진 것들이다.⁷⁾ 십자가의 요한은 예술가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작곡, 건축, 시 등에 많은 자질을 보였다.⁸⁾ 그중에서도 시에 가장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 그는 특히 수도원의 감옥에서 시를 많이 썼다. 그의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저서도 감옥에서 탈출한 후에 쓴 시와 주석이다. 그 책은 어두운 밤에 하나님을 찾아서 영적인 여정을 적고 있다. 십자가의 요한은 영성의 형성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어두움이 밝은 빛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며 마침내 하나님과의 합일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마지막까지도 많은 배신을 당하고 불명예스럽게 생을 마감했다.⁹⁾

2) 십자가의요한의 신학적 관점

십자가의 요한의 영성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의 신학적 관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선 그의 신학의 뿌리는 성경에 있으며 성경에 대한 지식이 탁월하였다.¹⁰⁾ 그의 신학은 하나님은 죄인들을 포함한 모든 영혼에 거하신다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을 반영한다.¹¹⁾ 십자가의 요한에게 하나님은 영원뿐 아니라 우리의 역사에 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또한 어거스틴처럼 그의 신학도 우리가 우리자신에게 가까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내포한다. 십자가의 요한은 진정한 하나님의 이미지는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신비하게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도 하면서 우리를 넘어서서 계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를 넘어선 초월적인 분이라고 하였

7) Williams, *Christian Spirituality*, 160–161.

8) Ernest E. Larkin, “Introduction,” in *John of the Cross: Selected Writings*, ed. Kieran Kavanaugh (New York: Paulist Press, 1987), 25.

9) Williams, *Christian Spirituality*, 159.

10) 주명수, 『영혼의 어두운 밤』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3), 339.

11) Cunningham, “St. John of the Cross, Mystic of the Light,” 25.

다.¹²⁾ 십자가의 요한은 또한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에 항상 영원한 침묵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에게 완전한 영성을 이룬 모델은 예수님이였다.

십자가의 요한은 그의 저서에서 몇 번의 신비 신학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나 개념의 틀을 벗어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상태를 의미하였다.¹³⁾ 신비신학은 이미 그전에 몇몇 교부들에 의해 사용되었다. 그 중의 하나인 닛사의 그레고리도 하나님과의 합일 상태를 언급하며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각과 이성적인 것들을 비우고 정화하여야 한다고 하였다.¹⁴⁾ 십자가의 요한과 마찬가지로 그도 어두운 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십자가의 요한은 또한 디오니시우스의 신비신학의 영향을 받았다.¹⁵⁾ 디오니시우스는 감각과 이성을 통하여 알 수 없는 거룩한 어두움을 언급하였다. 또한 신자가 하나님을 자기에게 끌어오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동적으로 하나님께 끌려간다는 역설적인 묘사를 하였다. 이렇듯 그가 사용하는 밤과 정화라는 말은 이미 쓰여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십자가의 요한은 영이 육보다 우월하다는 플라톤의 개념을 지양한 아퀴나스의 영향을 받아 인간의 본성은 감각과 영혼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에 의해서 정화된다고 주장하였다.¹⁶⁾ 그에 따르면, 감각적 부분은 몸과 감각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혼은 지성, 기억, 의지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그는 우리의 모든 부분

12) Cunningham, "St. John of the Cross, Mystic of the Light," 25.

13) 주명수, 『영혼의 어두운 밤』, 339-343.

14) 주명수, 『영혼의 어두운 밤』, 339-343.

15) 주명수, 『영혼의 어두운 밤』, 339.

16) Father Gabriele di Santa Maria Maddalena, *St. John of the Cross: Doctor of Divine Love and Contemplation*, trans. Abbey, Benedictine of Stanbrook. (Cork: Mercier Press, 1947), 9.

이 즉 몸과 영혼까지 하나님과의 신비적 합일을 통해서 이익을 누린다고 하였다. 토마스 아퀴나스도 영적인 능력으로 지성과 의지 두 가지를 말하였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요한의 영적인 기능과도 일치한다.¹⁷⁾ 십자가의 요한에게 죄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며 죄의 결과는 길을 잃고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¹⁸⁾ 비록 그가 어느 정도의 금욕과 삶으로부터의 분리를 강조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펠라우기스파의 극단적인 금욕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다.

3) 영혼의 어두운 밤: 영적 여정

여러 신학자와 영성가들에게 영향을 받은 십자가의 요한은 자신의 경험과 그들의 이론을 통합하여 자기만의 영적인 개념을 확립하였다. 그의 일생은 어두운 밤이었지만, 그는 어두운 밤을 하나님께 가는 영혼의 영적 여정이라고 설명하였다.¹⁹⁾ “The Ascent”라는 저서에서 그는 처음으로 밤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십자가의 요한은 최고의 영적 차원인 하나님과의 합일의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두 차원의 밤, 즉 능동적인 밤과 수동적인 밤을 거친다고 하였다. 그리고 다시 능동과 수동의 밤을 두 단계인 감각의 어두운 밤과 영혼의 어두운 밤으로 나누었다. 그의 영성 발달 과정에서 모든 단계가 어두운 밤으로 표현된 것은 독특하다. 하지만 그의 밤의 개념은 절망과 비참함의 단계인 동시에 희망과 자유의 역설적인 빛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즉,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생의 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영혼에 희망을 주면서 높은 차원의 영성에 이르게 함이라고 여겨진다. 성 요한은 어두운 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영적발달 과정의 네 과정을 소개하였다. 그 네 밤은 능동적 어두운 밤, 감각의 수동적 어두운 밤, 영혼의 능동적 어두운 밤, 그

17) 주명수, 『영혼의 어두운 밤』, 346.

18) Cunningham, “St. John of the Cross, Mystic of the Light,” 25.

19) Macquarrie, *Two Worlds Are Ours*, 174.

리고 영혼의 수동적 어두운 밤이다. 성 요한은 능동적인 밤에서는 우리 인간의 노력과 영혼의 활동이 중요하지만, 수동적인 밤에서는 하나님의 행동이 강조된다고 하였다.²⁰⁾

첫 단계인 감각의 능동적인 밤에서는, 한 개인이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는 능동적으로 자신의 감각을 제한하여 영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 성 요한은 왜 이 단계가 밤인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인간 스스로 감각을 제한하므로 밤이라고 표현했을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신자들은 자신이 애착을 가지고 있던 물질, 이미지, 그리고 생각을 비우려고 노력하여 영적인 기쁨을 누리려 한다.²¹⁾ 그리하여 오랜 시간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참회하는 영적인 행위를 하는 경향이 있다.²²⁾ 이때 하나님은 어머니처럼 영적으로 그들을 양육하는데, 신자들은 큰 갈등 없이 영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된다.²³⁾ 하지만 이 단계의 신자들은 아직도 결점이 많고 부족하며 속으로 자만심을 가지고 있다.²⁴⁾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애쓰거나 다른 사람들이 옳을 일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초신자의 영적추구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일을 방해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감각의 정화를 위해 능동의 밤에서 수동의 밤으로 인도하신다.²⁵⁾

두 번째 단계인 감각의 수동적인 밤에서는, 하나님이 신자의 육체적 욕구와 애착,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즐거움을 거두어 가

20) Keith R. Barron, "The Dark Night of God," *Studies in Formative Spirituality* 13(1992): 57.

21) Saint John of the Cross, *Dark Night of the Soul*, 38.

22) Williams, *Christian Spirituality*, 166.

23) Saint John of the Cross, *Dark Night of the Soul: A Masterpiece in the Literature of Mysticism*, trans. Allison Peers (New York: Image Books, 1990), 23; 38.

24) Saint John of the Cross, *Dark Night of the Soul*, 39.

25) John H. Coe, "Musing on the Dark Night of the Soul: Insight from St. John of the Cross on a Developmental Spirituality,"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28(2000): 300.

신다.²⁶⁾ 위에서 말한 대로 수동적인 밤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강조된다.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우리의 깊은 열망을 만족시키시기 원하지만 우리의 감각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거부한다.²⁷⁾ 그래서 하나님은 초신자가 가지는 영적인 욕심을 제거하고 겸손하게 그들의 욕구를 변화시키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감각의 힘에서 영적인 힘으로 옮기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영혼은 매우 건조한 채로 남아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기도하는 동안에 느낌이 없게 되고 그것을 자신의 게으름이나 죄로 여기고 더 많이 기도하려고 애쓴다.²⁸⁾ 또한 그들의 감각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폭풍과 시험을 겪게 하신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영혼은 여러 유익을 얻는다. 즉, 자신과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함과 초월을 아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영적인 겸손 등이다.²⁹⁾ 이 과정이 얼마나 길어지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신앙에 따라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 첫 번째 수동의 밤을 통과한 자는 영혼의 자유와 만족을 통해 그 전보다 더 기쁨을 누리게 된다. 십자가의 요한은 우리의 감각의 요구가 멈출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한 과정에 다다를 수 있고, 그럴 때 영혼의 많은 활동 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생기를 더하신다고 강조한다.³⁰⁾

세 번째 단계인 영혼의 능동적인 밤에서는, 신자들이 자신의 영적인 능력인 지성, 기억, 의지, 그리고 상상을 제한하여 '믿음, 소망, 사랑'의 미덕을 실행하려고 노력한다.³¹⁾ 십자가의 요한은 믿음은 지성을, 소망은 기억을, 그리고 사랑은 의지를 해방시킨다고 하였다. 비록 신자의 능

26) Cunningham, "St. John of the Cross, Mystic of the Light," 64-65.

27) Gerald G. May, *The Dark Night of the Soul: A Psychiatrist Explores the Connection Between Darkness and Spiritual Growth*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s, Inc., 2004), 56.

28) Barron, "The Dark night of God," 58.

29) Barron, "The Dark night of God," 76-81.

30) Saint John of the Cross, *Dark Night of the Soul*, 88-89.

31) May, *The Dark Night of the Soul*, 82.

동적인 노력이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히 경험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영성의 발달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합일을 위해서 이러한 적극적인 영혼의 활동은 거쳐 가야 할 과정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로 인해 영혼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위한 여지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으시지만,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을 거친다. 능동적인 밤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감각적, 지적, 그리고 영적인 만족감을 주는 것과 관계된 습관을 제한하기 위해 스스로 훈련하는데 있다. 또한, 복잡하게 하거나 채우기 보다는 간단하게 하고 비우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십자가의 요한은 영혼의 능동적인 밤의 여정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그는 능동의 밤에 얻는 것이 많지 않으므로 크게 주목하지는 않았다.³²⁾ 그러나 십자가의 요한은 이런 능동적인 정화의 단계 없이는 믿음의 밤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³³⁾ 영혼의 능동적인 밤은 영혼의 활동이 수동적으로 된다는 점에서 역시 역설적이다.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상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려 하고 마침내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게 된다.³⁴⁾

그리하여 마지막 단계인 영혼의 수동적인 밤에서 영적인 능력들, 즉, 지성, 기억, 그리고 의지가 비워진다.³⁵⁾ 이 시간에 신자들이 집착한, 즉 진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상들과 이미지들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정들이 제거되어 간다.³⁶⁾ 신자들은 하나님께 가는 영성의 형성과정에서 생긴 모든 것을 비우는 법을 배운다.³⁷⁾ 이렇듯 수동적인 어두운 밤을 겪는 이유는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

32) May, *The Dark Night of the Soul*, 83-85.

33) Williams, *Christian Spirituality*, 164

34) Barron, "The Dark night of God," 60-61.

35) May, *The Dark Night of the Soul*, 88.

36) May, *The Dark Night of the Soul*, 91

37) Macquarrie, *Two Worlds Are Ours*, 176

기 어렵기 때문이다. 영혼의 수동적인 밤은 신자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합일에 이르게 한다.³⁸⁾ 영혼의 수동적인 밤 동안에 그들 안에서 불순물들이 제거되기까지 두 가지 상반된 것들이 싸우기 때문에 아픔, 상실, 그리고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³⁹⁾ 이 단계의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고 다시는 좋은 시간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을 겪는다. 영혼은 그로 인해 생긴 불순물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⁴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영혼의 약함과 불완전함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이다.⁴¹⁾ 이러한 영혼의 경험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기 때문에 밤이라고 표현되었다.⁴²⁾ 하지만 가장 깊고 어두운 밤에 마침내 하나님의 빛이 임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비밀들을 영혼에게 알려주신다.⁴³⁾ 감각과 영혼의 두 수동적인 밤은 하나님에 의한 정화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밤은 첫 번째 밤보다 더욱 혼란스럽고, 어둡고, 비참하다.⁴⁴⁾ 십자가의 요한은 비록 이 두 수동의 밤이 고통과 연관되어 있지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도록 도와준다고 하였다. 십자가의 요한에게 마지막 밤은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영적인 결혼의 상징이다.⁴⁵⁾ 그는 영적인 사람은 대개 오래도록 긴 첫 번째 밤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 두 번째 밤으로 들어간다고 하였다.⁴⁶⁾

38) Gabriele, *St. John of the Cross*, 45.

39) Saint John of the Cross, *Dark Night of the Soul*, 102.

40) Saint John of the Cross, *Dark Night of the Soul*, 100.

41) Saint John of the Cross, *Dark Night of the Soul*, 128.

42) Williams, *Christian Spirituality*, 164.

43) May, *The Dark Night of the Soul*, 86.

44) Barron, "The Dark Night of God," 57.

45) Larkin, *John of the Cross*, 43.

46) Saint John of the Cross, *Dark Night of the Soul*, 22-24.

4) 영적 성장의 과정

위에서 살펴본 대로 십자가의 요한이 말한 신자의 영적 성장의 연대 기적 과정은 네 단계이다. 처음은 초신자의 능동적 기도의 단계로 시작하며 마지막은 수동적인 하나님과의 합일의 차원까지 이른다. 이렇듯 십자가의 요한의 영적 성장의 단계는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차원의 감각과 영혼의 수행과 비움으로 이루어진다. 초신자는 스스로 세상의 감각적 기쁨을 버리고 기도와 말씀과 봉사의 능동적인 영적 행위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려 한다. 신앙의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기쁨을 누리도록 하신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런 만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영혼의 기쁨이 없는 메마른 상태를 주시는데 이 때 그들은 당황하게 되고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찾으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각의 수동적인 밤을 맞이하게 된다. 신자들은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더 이상 말씀을 읽어도, 예배를 드려도 그 전에 누렸던 기쁨도 없고, 기도의 응답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실망하여 기도를 멈춘다면 더 이상 영적인 성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 메마름의 고통을 통해서 신자들을 감각의 멍에서 자유로워지는 기도를 하게 되는 영적인 상태로 이끌게 하기 때문이다.⁴⁷⁾ 반면에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갈망한다면 하나님의 빛 안에서 자신을 바로 조명해 볼 수 있게 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애착의 정체를 알게 될 것이다. 신자들은 이 단계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된다.

신자는 세 번째 영적인 단계에서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상태에 이르기 위해 다시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믿음, 소망,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영적인 능력들인 지성, 기억, 의지 등을 정화하려 하고 예수님의 믿음의 본을 따르려고 노력한다. 지식을 정화하는 것은 자신이 알고 있

47) Gabriele, *St. John of the Cross*, 144, 148.

는 모든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을 방해하는 과거의 기억에도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보는 능력이다. 또한 하나님을 아닌 것에 사용되는 의지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돌이키는 것이다. 이 단계는 패러다임 전환의 단계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십자가의 요한이 강조하는 최고의 영성의 단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노력마저 부인하신다. 하지만 자신의 지식과, 기억과 의지로부터 분리하려고 하는 과정은 그 다음 영적 단계에 이르기 위한 훈련 단계이다.

십자가의 요한에게 순수한 관상은 신자에게 속한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다. 따라서 관상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이다.⁴⁸⁾ 세 번째 단계에서 존재했던 믿음 소망 사랑의 미덕은 네 번째 단계에선 이상 작동되지 않고 또다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이른다. 신자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그저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른다. 이 기간 동안 신자들은 비록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속에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음을 지각해야만 한다. 십자가의 요한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합일을 위한 영혼의 갈망을 신자의 삶의 경험에서 가장 심오한 것으로 여긴다.⁴⁹⁾ 또한 십자가의 요한은 영성의 최고의 차원인 하나님과의 완전한 합일은 인간이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하나님과의 합일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이다. 각 사람이 하나님과의 합일된 상태에서 태어나지만 문제는 신자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다.⁵⁰⁾ 하나님과의 신비적인 체험, 즉 합일은 비밀스럽게 그리고 신자의 의식통제를 넘어서 일어난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합일은 사람들에게 삶과 관계에서 사랑을 실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

8) May, *The Dark Night of the Soul*, 107.

49) Markey, "Instrument of the Spirit," 21.

50) May, *The Dark Night of the Soul*, 43-58.

고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

이러한 영적성장의 단계에서 신자가 어느 단계까지 이르는지에 대한 것은 각자의 몫이다.

십자가의 요한은 각 사람의 영혼이 다 다른 경지에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말로 하면, 각각 다른 방법으로 높은 차원의 영성에 도달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요한에게 영혼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께 끌려가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을 찾는 것은 자신을 아는 것, 그리고 자신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을 포함하는 의식의 여정이라고 하였다.⁵¹⁾ 하나님과의 연합을 경험하기 위해선 영혼은 자신에게 편안한 것과 자신의 능력을 포기해야 한다. 하지만 스스로 그 편안한 것을 초월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신다. 그는 한번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은 세상의 선과 아름다움을 초월하는 경험이라고 하였다.⁵²⁾ 십자가의 요한의 영혼의 어두운 밤은 자유롭게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계속적으로 임파워되는 영적인 과정이다.⁵³⁾ 하지만 이 마지막 단계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단계이며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경지는 아닌 것 같다. 이 세상에서 이 단계까지 도달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십자가의 요한의 이 마지막 단계, 즉 수동적인 영혼의 어두운 밤은 신자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즉 영적 성장은 결코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려놓게 하는 과정이라는 교훈을 얻는다.⁵⁴⁾

5) 고난에 대한 견해

십자가의 요한이 말하는 영혼의 어두운 밤은 고난의 밤이다. 그렇다면

51) May, *The Dark Night of the Soul*, 43-58.

52) Williams, *Christian Spirituality*, 162-164.

53) May, *The Dark Night of the Soul*, 5.

54) May, *The Dark Night of the Soul*, 86.

고난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그의 저서를 읽다보면 고난의 밤은 마치 인간의 내부에서 오는 영혼의 고통인 것 같은 느낌이 강하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개입에 외부에서 오는 시련을 포함시켰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십자가의 요한도 그의 인생에서 외부에서 오는 혹독한 시험과 시련을 겪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자신의 내부와의 갈등과 연결시켰다. 아마도 십자가의 요한은 극심한 정서적 경험으로 정서적인 고통이 심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의 정서적인 고통을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하여 해석하려고 시도하였다.⁵⁵⁾ 그가 말했던, 두 번째 수동적인 영혼의 어두운 밤에서 겪은 무섭고 끔찍한 영혼의 경험은 감옥에서의 겪은 극심한 고통의 반영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⁵⁶⁾ 그는 영혼의 수동적인 어두운 밤은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격이라고 묘사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영혼은 영적인 죽음과 같이 잔인하게 소멸되고 녹아버리는 느낌을 갖는다고 하였다. 십자가의 요한은 그와 같은 경험을 한 성경의 요나, 다윗, 욥을 예로 들었다.⁵⁷⁾ 그는 시편의 다윗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시 113:3-4). 그에게 가장 심한 영혼의 경험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느낌과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에서 오는 고통과 죽음의 그림자였다.

십자가의 요한에게 고난은 영적인 삶의 근본적인 법칙이며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한 위대한 스승이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가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생기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통제를 풀지 않는 한 인간은 가장 깊은 중심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하였다.⁵⁸⁾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 자기

55) Williams, *Christian Spirituality*, 161.

56) Saint John of the Cross, *Dark Night of the Soul*, 61.

57) Saint John of the Cross, *Dark Night of the Soul*, 104-105.

58) Markey, “Instrument of the Spirit,” 21.

자신을 사랑하기를 비울 수 있다.⁵⁹⁾ 그런 의미에서 분리되는 십자가의 요한의 영적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이다. 그는 영적 성숙이 세상적인 것과의 분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였다.⁶⁰⁾ 즉 영성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한 과도한 애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숙의 과정은 방종과 불순한 애착과 강박에서 분리되어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은 과격한 자기 비움이므로 아픔과 고통과 비탄을 동반한다.⁶¹⁾ 십자가의 요한은 성숙한 사람은 어려움을 기꺼이 겪으려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정서적인 안정성을 지킨다고 하였다.

십자가의 요한은 일시적인 안녕과 성공을 바랄 때 영혼의 고통과 약함을 초래하며 세상적인 선을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비록 세상적인 욕구가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방해하지만 다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세상에 대한 애착과 습관은 그렇게 심각한 죄는 아니지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자기중심적인 것들을 빛으로 드러나게 할 때 신자는 그것들과 싸워서 영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⁶²⁾ 십자가의 요한은 편안한 삶을 추구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피하는 사람들을 세속적이고 가치 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겼다. 신자는 고난을 직면해서 진리를 더욱 자각하게 되고, 현실을 더욱 알게 되며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는 시련을 영적인 삶에서 가치 있게 여겼다. 이것은 병적으로 고난을 갈망하는 것, 즉 자신의 성취와 다른 것이다.⁶³⁾ 십자가의 요한은 오랜 감옥생활에서의 육체적, 정신적 고난에

59) Gabriele, *St. John of the Cross*, 88.

60) Williams, *Christian Spirituality*, 163.

61) May, *The Dark Night of the Soul*, 5.

62) May, *The Dark Night of the Soul*, 165.

63) Williams, *Christian Spirituality*, 167-168.

서, 그의 영혼의 수동적인 정화, 하나님과의 영적인 결혼을 경험하였다. 그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거룩한 고통을 추구한 것이었다.⁶⁴⁾

현대의 정신의학자인 **Gerald May**는 십자가의 요한의 영혼의 어두운 밤에 대한 내용은 사람들의 고난을 최소화 시켜주기 위함이라고 보았다. 십자가의 요한은 반드시 고난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반드시 고난을 찾아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였다. 오히려 그것이 극적이던, 끔찍하던, 아니면 일상생활에 나타나던 하나님의 뜻으로 오는 것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겪든지 기뻐하던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의 긍휼하심과 용서로 우리를 격려하고 힘을 주셔서 우리가 응답하기를 바라신다.⁶⁵⁾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들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더욱 더 큰 정화와 인내를 이루기를 바라신다.

2. 현대적 관점에서의 조명

16세기 천주교의 수도사였던 십자가의 요한의 영성에 대한 가르침을 21세기에 다시 조명해 본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특히 과학과 이성의 모더니즘에서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접어든 이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영성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미국에서 상담과 병원에서의 원목 실습 중에 많은 서구 기독교인들이 동양인인 나에게 동양의 묵상이나 영성훈련에 큰 관심을 표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목회상담가는 신학과 영성과 심리학을 통합하는 상담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십자가의 요한

64) Gabriele, *St. John of the Cross*, 13, 44, 88.

65) May, *The Dark Night of the Soul*, 8-12.

의 영성이 어떻게 심리학적으로 분석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May는 십자가의 요한을 뛰어넘은 심리학자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가 자신에 대한 내적 통찰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소통할 줄 알고 또한 글로 묘사하는 데도 특출한 재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⁶⁶⁾ 그는 또한 십자가의 요한이 현대 신경과학자들보다 더 분명한 의식의 역동에 대한 통찰력이 있으며 인간의 무의식에 대한 이해에 대한 기여를 하였다고 하였다. 물론 십자가의 요한은 무의식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무의식이란 개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의 글을 읽다보면 신자가 자신의 죄성을 인식해 가는 과정들을 묘사할 때마다 다분히 무의식에서 의식의 전환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십자가의 요한이 수동적인 영혼의 어두운 밤에 대한 묘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두운 부분을 주도적으로 정확시키는 부분은 인간이 의식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나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을 보게 된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 자기 자신을 더욱 조명하는 무의식의 의식화를 통하여 자신의 무력함, 무가치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된다.

May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과대망상적인 자만감에서 겸손으로 그리고 자기수용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묘사하였다.⁶⁷⁾ 프로이드는 종교는 인간에게 보호받고 깊은 욕구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 생기는 보상과 같은 소원으로 가지는 환상이라고 하였다.⁶⁸⁾ 하지만 십자가의 요한에 의하면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이 아닌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과의 연합의 본능을 갖고 있음을 알게 하시는 실제 존재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된다. 즉 프로이드가 말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화하여 유아적인 욕구를 가지고 신앙을 가지는 때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66) May, *The Dark Night of the Soul*, 154.

67) May, *The Dark Night of the Soul*, 166.

68) 김홍근, 『심층심리와 기독교 영성』(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4), 46.

그러한 어두운 밤의 상태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여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하게 되는 빛의 단계로 이끄시는 것이다. 앤 올라노프는 프로이트는 종교가 아닌 사람이 행하는 심리학으로 영혼의 돌봄을 마련하려 하였지만 실제로 무의식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통로를 마련해 주었다고 하였다.⁶⁹⁾

또한 May는 십자가의 요한의 심리학적 현상에 대한 묘사는 방어기제, 행동학적 조건화, 중독과 정서적인 장애, 그리고 정신증을 연상케 한다고 하였다.⁷⁰⁾ Kevin Culligan도 십자가의 요한의 심리학적 통찰력이 심리발달단계, 무의식적 동기, 정서적 회복, 그리고 대인관계의 역동 등에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였다.⁷¹⁾ 십자가의 요한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하여 자신과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변화시켜가는 과정이 방어기제 중의 투사에 대한 부분이라고 본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실체가 아니라 투사에 의한 것이며 하나님은 그러한 투사를 제거해 가시고 실체를 보게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투사에 의해 진정하지 않은 것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한다. May는 우리가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현상은 현대에 와서 강박이나 중독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⁷²⁾ 십자가의 요한에 의하면 집착들은 또한 부인에 의해 더 강해진다.⁷³⁾ 부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에 대한 자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우리가 실제 생각 하는 것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십자가의 요한은 영적이고 심리학적 건강은

69) Ann Belford Ulanov, *Spirituality & Psychotherapy*, 이재훈 역, 『영성과 심리치료』 (서울: 한국심리치료 연구소, 2005), 68.

70) May, *The Dark Night of the Soul*, 153.

71) Kevin Culligan, "Saint John of the Cross and Modern Psychology," *Studies in Formative Spirituality* 13(1992): 27.

72) May, *The Dark Night of the Soul*, 159-161.

73) May, *The Dark Night of the Soul*, 60-63.

대상 혹은 물질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정서적인 에너지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⁷⁴⁾

Keith Barron은 심리학 이론들을 통하여 십자가의 요한을 감각적인 심상들을 넘어선 기도를 설명하였다.⁷⁵⁾ 그는 정신역동 심리학, 특별히 대상관계이론이 십자가의 요한의 영혼의 어두운 밤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대상관계이론에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포함한 중요한 사람들에 대한 대상표상이 있으며, 가장 어렸을 때에 관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하다. 그 표상은 내면화된 대화를 통해 그들의 마음에 계속 작동한다. 이러한 내적대상은 자신에 대한 이해와 대인관계에 대한 이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이미지는 하나님이 아닌 형상으로 형성되어 투사된다. 투사된 하나님의 표상은 인간에 의해 창조되었으므로 불완전하고 왜곡된다.

그러므로 Barron은 신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상 표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을 알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전부를 알 수 없다고 하였다.⁷⁶⁾ 하지만 인간의 영혼은 관상 기도를 통하여 어린 시절의 불완전함을 넘어서고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이미지를 초월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는 영혼의 수동적인 어두운 밤의 단계에서 영혼은 자신이 투사해온 대상들과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자율성이 분리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며, 때로는 그 두려움이 분노나 우울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였다. Barron은 대상관계이론에 의하여 진정한 사랑은 개인의 진실성과 자율성을 향상시키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사람들은 거짓자기와 거짓 하나님의 형상을 제거해 나간다고 하였다. 비슷하게 John Coe는 십자가의 요한의 영성발달을 심리발달 단계와 연관하여 이해하려고 하였다.⁷⁷⁾

74) May, *The Dark Night of the Soul*, 44.

75) Barron, "The Dark Night of God," 50-55.

76) Barron, "The Dark Night of God," 62-66.

77) Coe, "Musing on the Dark Night of the Soul," 295-304.

그는 성령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서 사람의 영혼에 영향을 미쳐서 거짓 자기와 거짓의 것들에 집착하는 것을 정화시킨다고 하면서 초신자들은 그들의 욕구와 희망이 병리적인 것임을 발견하게 되며 그들의 욕구와 희망이 하나님의 욕구와 희망으로 대체되는 것을 경험할 것이라고 하였다.

May는 영혼의 어두운 밤과 우울증을 구별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만약 신자들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을 모른다면 그들은 자신을 더 훈련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노력이 성공하지 않는다면 포기하게 되면서 크게 좌절할지 모른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으며,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울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⁷⁸⁾ 물론 어두운 밤의 상태에서는 인간의 유머적인 감각과 타인에 대한 긍휼이 남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여전히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고 하였다. Coe 또한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병리적인 심리증상들로부터 구별하려고 노력하였다.⁷⁹⁾ 그는 임상적인 우울증은 더 생리적이고 역사적인 병인을 가지고 있는 반면 영혼의 어두운 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특별한 초점을 둔다고 하였다.⁸⁰⁾ 하지만 May는 우울증이 어두운 밤의 일부분일 경우가 있고 또한 서로 공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굳이 따로 구별하려 노력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위에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요한의 영성의 교훈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지금부터는 그러한 분석들 어떻게 신자의 영성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첫째, Culligan은 십자가의 요한의 이론이 심리-영성 모델을 필요로 하는 목회학의 분야와 관련이 깊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목회자나 영성지도자는 먼저 영혼의 어두운 밤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십자가의 요한의 영적인

78) May, *The Dark Night of the Soul*, 151-154.

79) Coe, "Musing on the Dark Night of the Soul," 306-307.

80) May, *The Dark Night of the Soul*, 84.

삶에 대한 충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목회자나 영성 지도자는 너무 많이 간섭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⁸¹⁾ 그들은 이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여정이 가치 있는 일임을 말하면서 격려와 지도를 해줘야 한다. 십자가의 요한은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악하므로 어두운 밤에 있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때에는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 단계에서 초신자들은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해석해줄 수 있는 지혜로운 멘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초신자들은 아마도 그런 회복을 거부하게 될 것이다. Coe는 이 단계에서 영성지도자들이나 상담가들이 죄책감이나 과격한 영성 훈련에 돌입하게 하는 사람들의 방어적 행동들을 알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십자가의 요한은 가장 중요한 영성 지도자의 질은 경험이라고 하였다.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영성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여정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영성 지도자들은 사람마다 영적인 여정의 과정은 다 다를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다 똑같은 방법으로 지도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⁸²⁾ John Markey에게 겸손은 영성 지도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돕기 전에 자신을 먼저 아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그들의 약점, 지성, 영적 성향을 포함한다. 그는 영성 지도자들을 중요한 질은 겸손이며, 그래야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허용하게 된다.⁸³⁾ 그러므로 영성 지도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바탕으로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십자가의 요한의 교훈은 목회상담가에게 많은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 영성지도자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영혼의 어두운 밤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수 있고 그것은 문제로 여겨질 것이다.⁸⁴⁾ 그러나

81) May, *The Dark Night of the Soul*, 169.

82) Markey, "Instrument of the Spirit," 22.

83) Markey, "Instrument of the Spirit," 23-25.

84) May, *The Dark Night of the Soul*, 84.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의 한 부분이므로 상담가들은 그러한 느낌을 다룰 필요가 없을 지도 모른다. 상담가가 주의 깊게 들으며 함께 있어주면서 두려운 감정과 영혼의 메마름에 대한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한다. May는 내담자가 자신을 괴롭히는 행동을 하거나 정신적 무감각을 보인다면 상담가는 그것을 다루어줘야 할 것이고, 만약 사람들이 공허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영적성장의 자연스러운 과정에 있는 것이므로 그것이 더 쉽게 일어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십자가의 요한의 교훈은 인간의 자율성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세속적인 심리학 이론들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을 것을 시사한다. 목회자나 목회상담가는 현대 심리학 이론에 기초하여 다른 사람들을 분석하고 통제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많은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작업을 방해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⁸⁵⁾ 십자가의 요한은 사람들을 진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의 참 갈망이 무엇인지를 반영하도록 도와주도록 권고한다.⁸⁶⁾ 그런 면에서 상담가는 내담자가 영적성장에서 일어나는 고통을 피하거나 억압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 누군가 같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또한 정신적인 무감각이나 죄책감, 우울감 등을 표현할 때 목회상담가는 그들의 무의식에 있는 자신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다룰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Coe와 Barron의 주장을 적용하면, 내담자에게 적절한 질문과 적극적인 경청, 그리고 깊은 공감을 통해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서 거짓자기와 실제자기의 차이를 알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자기 자신을 수용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자신보다 더 자신을 잘 아는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어떤 부분을 다루고 계시는지 깨닫게 하여 자기 비움의 과정을 용기 있게 받

85) May, *The Dark Night of the Soul*, 85.

86) May, *The Dark Night of the Soul*, 171.

아들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그리고 내담자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들의 어린 시절을 탐색하여 어떻게 그 이미지가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실제 하나님과 자신이 투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 더 쉽게 영적 성장이 일어나도록 도와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십자가의 요한의 영적 성장의 과정에 대한 교훈에는 몇몇 제한점이 있다. 첫째, Steven Payne은 신자가 수동적인 밤을 지내고 있는지 아닌지 정확히 구분하기 힘들다고 하였다.⁸⁷⁾ May도 말하기를 십자가의 요한이 하나님과의 합일에 대한 과정을 연대기적으로 설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합일이 한번 있는 일인지 아닌지 혼란스럽다고 하였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현재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자각이 어렵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합일이 일어난 후의 상태에 대한 설명도 모호한 것이다. May는 십자가의 요한의 영적발달단계가 연대기적인 아니라 앞뒤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는데 필자는 그의 의견에 동의한다. 그러므로 목회자, 영성지도자나 목회자들에게는 예리한 영적 분별력이 요구된다고 본다.

둘째로 십자가의 요한은 영적인 여정에서 사람의 기질이나 성별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다. James Arraj도 한번도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기질과 성별의 영향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하였다.⁸⁸⁾ Payne은 또한 어두운 밤의 고난의 과정이 위기의 어려운 순간에 기질이나 어떤 특별한 필요에 따라 일어날

87) Steven Payne, *John of the Cross and the Cognitive Value of Mysticism : An Analysis of Sanjuanist Teaching and Its Philosophical Implications for Contemporary Discussions of Mystical Experience*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0), 253.

88) James Arraj, *St. John of the Cross and Dr. C. G. Jung: Christian Mysticism in the Light of Jungian Psychology* (Chiloquin, OR.: Inner Growth Books, 1986), 101.

수도 있다고 하였다.⁸⁹⁾

셋째로 May는 집단에서의 어두운 밤은 어떤 것일지 의문을 던졌다.⁹⁰⁾ 물론 십자가의 요한은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그에 대해 유추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May는 부부, 가족, 그리고 문화와 같은 집단도 개인 영혼이 겪는 어두운 밤과 같은 과정을 경험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한 집단에서 사람들인 개인이 겪는 것처럼 혼란과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May는 십자가의 요한의 초점이 개인의 관상에 대한 것이고 그의 저서는 종교적인 테두리를 지나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체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였다.⁹¹⁾ 그는 이것이 십자가의 요한이 개인이 바뀌면 그가 속한 사회가 바뀔 것이라고 믿어서 그런 것이지 그가 사회 정의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May는 십자가의 요한이 사회 정의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은 사회 체제가 개인이 살고 있는 환경으로 여겼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하였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십자가의 요한은 불의한 고난에 대한 설명이 없었지만 외부에서 오는 고난이 폭력이나 불의에 의해 임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이라고 여겨 그 불의를 허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3. 십자가의 요한의 고난에 관한 복음주의적 평가

묵회상담자의 중요한 역할들 중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들의 공통적인 경험을 연결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⁹²⁾ 십자가의 요한의

89) Payne, *John of the Cross and the Cognitive Value of Mysticism*, 251-252.

90) May, *he Dark Night of the Soul*, 174-176.

91) May, *he Dark Night of the Soul*, 174-176.

92) Nancy J. Gorsuch, *Introducing Feminist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Cleveland: Pilgrim Press, 2001), 13-18.

영성신학은 극심한 개인적인 고난위에 통합된 것이고 그에 따른 개념을 기독교 신자들이 자신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십자가의 요한의 영성은 중세의 신비주의 영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영성이란 용어는 천주교에서 시작되었지만 1960년대 이후부터는 인간의 내적인 삶과 내적치유가 강조되면서 개신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⁹³⁾ 최형걸은 관상기도가 3세기부터 이어진 수도원 운동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수많은 복음주의 교회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고 밝혔다.⁹⁴⁾ 그에 의하면, 개신교에서는 영성이라는 용어 대신 경건이나 헌신이라는 용어를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사용하였으며, 영성을 펠라기우스적 입장과 같이 생각하여 배척해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현대에 와서 개신교는 영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개신교적 입장에서 정리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피력하였다. 영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는 과학과 이성의 시대에서 전환되는 시기에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변화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현대의 기독교 상담이나 목회상담에서도 영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십자가의 요한의 영성의 개념은 개혁주의 영성과 비교했을 때 제한되는 점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여기서는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그의 고난에 대한 영성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첫째, 십자가의 요한의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한 하나님과의 합일의 과정은 일반 신자들이 도달하기에 어려워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그의 영성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기보다는 성직자나 특정 사람들에게만 가능해 보이는 인상을 준다. 특히 영혼의 수동적인 어두운 밤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기다리는 관상기도가 일상의 기도와 거리가 있어 보인다. 또한 하나님과의 합일을 위한 자기부인이나 자기비움 등을 통한 하나님과의 연합의 목표를 향한 실천

93) 윤희룡, 『하나님 체험과 영성수련』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2), 40.

94) 최형걸, “기독교 영성에 대한 이해”, <http://www.cjob.co.kr/christianity-2400.html>.

의 지침이 분명하지 않다.

둘째, 십자가의 요한의 영성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삼위일체 하나님보다는 자기비움의 관상을 통한 하나님이 더 강조된다.⁹⁵⁾ 특히, 신자의 삶에서 성령충만함과 성령의 역사에 의한 열매를 맺는 과정의 영성에 대한 강조가 약해 보인다. 로마서에서 나타난 바울의 영성은 십자가의 요한과 마찬가지로 비움의 영성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바울은 프누마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인 성령 충만함, 성령의 열매를 통한 기독교인의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역사참여를 강조했다.⁹⁶⁾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실제였고 기독교 영성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삶의 변화에 있으며 그것은 단순한 변화를 넘어서 전 존재의 변화를 의미한다.⁹⁷⁾ 따라서 십자가의 요한은 고난을 통한 영적 성장의 과정에서 매순간 성령의 역사보다는 궁극적인 목표인 하나님과의 연합이 가장 중요시되는 면이 있다. 그가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상에서 경험한 합일의 기쁨의 시간에 대한 언급은 강렬하지만 짧은 시간의 경험처럼 보인다. 신현수에 따르면 명상은 마음을 비움으로써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합일을 지향하는 반면, 기도는 인격적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신자의 간구를 들어 주시도록 아뢰는 것이다.⁹⁸⁾

셋째, 그의 영성에는 개인경건의 개혁에서 시작해서 가정과 사회와 국가로 변혁을 시도한 능동적 참여의 경험이 결여되어 있다.⁹⁹⁾ 천주교와 기독교의 통합적인 영성의 개념을 제시한 안영권은 하나님과의 신비

95) 이태복, 『영성, 이렇게 형성하라』 (서울: 지평서원, 2010), 145-149.

96) 조명기, “신비와 수덕의 창조적 결합 속에 나타난 바울의 영성: 기독교 상담학적 인 관하에 대한 영성 신학적 기초,”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11권 (2010): 115.

97) 신현수, 『개혁주의 영성: 은혜가 넘치는 죄인의 영성』 (용인: 목양, 2011), 21.

98) 신현수, 『개혁주의 영성: 은혜가 넘치는 죄인의 영성』, 82.

99) 조명기, “신비와 수덕의 창조적 결합 속에 나타난 바울의 영성,” 152.

적 연합에 강조점을 두는 영성과 개인적 경건에 강조점을 두는 영성 외에도 사회적 참여에 강조점을 두는 영성과 관계로의 영성을 강조하였다.¹⁰⁰⁾ 신현수도 신비주의만이 강조된 영성은 신자들이 하여금 교회를 소홀히 여기는 경향을 낳게 되었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후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 예를 들면서 그들이 성령충만하여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세우고 유지함을 역설하였다.¹⁰¹⁾

결론적으로 교회는 개인적인 묵상 훈련이나 영성 훈련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메마른 영성도 경계해야 하지만 그것만을 강조하는 신비주의 영성도 경계해야 한다.¹⁰²⁾ 그런 면에서 십자가의 요한의 영성도 한쪽으로 치우친 감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성이 신자가 고난을 통해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는 높은 차원의 영성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삶의 변화를 통해 이웃과 사회와 교회를 세우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면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III. 닫는글

현대의 관점에서 볼 때 십자가의 요한의 경험적인 교훈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 통찰력 있는 교훈을 주고 있다. 그의 영적인 삶은 현대의 영성과 목회사역에 크게 도움을 준다. 특히 그의 교훈은 심리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현대 영성지도자들과 목회상담가들이 심리학과 영성과의 통합을 통하여 신자들을 도울 수 있다. 즉

100) 안영권, “기독교 영성이란 무엇인가?,” 『목회와 신학』 1993년 10월호, 44-46; 신현수, 『개혁주의 영성: 은혜가 넘치는 죄인의 영성』 (용인: 목양, 2011), 22-23.

101) 신현수, 『개혁주의 영성: 은혜가 넘치는 죄인의 영성』, 82.

102) 이태복, 『영성, 이렇게 형성하라』, 276-279.

영적인 여정의 과정 중에서 신자들이 자신의 상처를 잘 다루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다. 영성지도자로서의 십자가의 요한은 신자들의 영적 여정 과정에서의 무의식의 작동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였다. 그리하여 십자가의 요한의 견해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자원이 된다. 그에게 영적 성장의 과정에서 자기 비움은 당연한 것이며 그것은 목회상담자들, 심리치료가들,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이 내담자들이 꺼내놓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받아주며 그러한 과정이 가치 있는 것임을 알려주며 힘과 격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들은 내담자에게 하나님의 개입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그들의 자기성찰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높여 주어 하나님 인도하시는 영적 여정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영성의 개념이 개신교 전체의 기독교 영성을 정의하기에 무리가 있음을 밝혀둔다. 또한 영성을 목회상담학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심리학적 분석에만 초점을 맞춘 것도 제한점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복음주의적인 영성을 적용한 통합적인 면에서의 목회상담학적인 제안이 나온다면 기독교인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론만이 아닌 경험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더 유익한 연구 결과가 나오리라 믿는다.

【 참고문헌 】

- 김홍근. 『심층심리와 기독교 영성』.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4.
- 신현수. 『개혁신주의 영성: 은혜가 넘치는 죄인의 영성』. 용인: 목양, 2011.
- 안영권. “기독교 영성이란 무엇인가?”. 『목회와 신학』 1993년 10월호, 38-47
- 유해룡. 『하나님 체험과 영성수련』.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2.
- 이태복. 『영성, 이렇게 형성하라』. 서울: 지평서원, 2010.
- 조명기. “신비와 수덕의 창조적 결합 속에 나타난 바울의 영성: 기독교 상담학적 인간학에 대한 영성 신학적 기초”.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11권 (2010): 237-266.
- 주명수. 『영혼의 어두운 밤』.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3.
- 최형걸. 기독교 영성에 대한 이해. <http://www.cjob.co.kr/christianity-2400.html>.
- Arraj, James. *St. John of the Cross and Dr. C.G. Jung: Christian Mysticism in the Light of Jungian Psychology*. Chiloquin, OR.: Inner Growth Books, 1986.
- Barron, Keith R. “The Dark Night of God.” *Studies in Formative Spirituality* 13 (1992): 49-72.
- Coe, John H. “Musing on the Dark Night of the Soul: Insights from St. John of the Cross on a Developmental Spirituality.”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28 (2000): 293-307.
- Culligan, Kevin. “Saint John of the Cross and Modern Psychology.” *Studies in Formative Spirituality* 13(1992): 29-48.
- Cunningham, Lawrence S. “St. John of the Cross, Mystic of the Light: A Search for the Historical John.” *America*, January 2006, 22-25.
- Dupré, Louis. & Wiseman, James. “General Introduction.” *In Light from Light: An Anthology of Christian Mysticism*. Eds. Louis Dupré & James Wiseman. New York: Paulist Press, 2001.
- Gabriele di Santa Maria Maddalena, Father. *St. John of the Cross: Doctor of Divine Love and Contemplation*. Trans. Abbey, Benedictine of Stanbrook. Cork: Mercier Press, 1947.

- Gorsuch, Nancy J. *Introducing Feminist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Cleveland: Pilgrim Press, 2001.
- Saint John of the Cross. *Dark Night of the Soul: A Masterpiece in the Literature of Mysticism*. Trans. Allison Peers. New York: Image Books, 1990.
- Larkin, Ernest E. "Introduction." In *John of the Cross: Selected Writings*. Ed. Kieran Kavanaugh. New York: Paulist Press, 1987.
- Macquarrie, John. *Two Worlds Are Ours: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Mysticism*.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2005.
- Markey, John. "Instrument of the Spirit: The Role of the Spiritual Director in the Writings of John." *Studies in Formative Spirituality* 13(1992): 13-28.
- Mass, Robin. & O' Donnell Gabriel. *Spiritual Traditions for the Contemporary Church*.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0.
- May, Gerald. *Care of Mind, Care of Spirit*. San Francisco, CA.: Harper & Row, 1982.
- May, Gerald G. *The Dark Night of the Soul: A Psychiatrist Explores the Connection Between Darkness and Spiritual Growth*.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s, Inc., 2004.
- Payne, Steven. *John of the Cross and the Cognitive Value of Mysticism: An Analysis of Sanjuanist Teaching and Its Philosophical Implications for Contemporary Discussions of Mystical Experience*.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0.
- Ulanov, Ann Belford. *Spirituality & Psychotherapy*. 이재훈 역. 『영성과 심리치료』. 서울: 한국심리치료 연구소, 2005.
- Williams, Rowan. *Christian Spirituality: A Theological History from the New Testament to Luther and St. John of the Cross*. Atlanta: John Knox Press, 1980.

【 Abstract 】

The Role of Suffering in Spiritual Growth From a Perspective of John of The Croess: Its Psychological Implications in Contemporary Context

Inhyo Cho

Soongsil University

There is no doubt that there are many kinds of sufferings which can beset us in this life. In the Medieval time, St. John experienced severe physical, mental, and spiritual suffering. His life was a dark night, but he considered it as a journey to God. He tried to live a holy life and have communion with God, and then to help others more effectively. For him, God uses trials and suffering to bring people to greater purification. Thus, the soul experiences extreme pain because of its impurity. However, he did not believe that God imposes suffering on us. Rather, God wants to stand with us to encourage and empower us in our suffering to grow and to rely on Him more. According to St. John, union with God is not something that we can achieve but something that already exists. The mystical experience, union with God, happens in a way that is hidden and beyond our conscious control. Thus, it is important how Christian sufferers understand their suffering within a theological framework and find meaning in their suffering. Even in our time, St. John's views on suffering and spirituality also can be applied to psychology, pastoral ministry, and spiritual direction. His writings have provided much insight for pastoral caregivers and counselors. St. John's transcendent experience of love and healing offers not judgment but hope in the midst of suffering and influenced the formation of his compassion and love for other Christians who suffer.

Key words: Christian spirituality, spiritual growth, suffering, dark night of the soul, pastoral counseling